

오 정근 작가의

‘쿠퓨스텐담의 틈새 (Die Zwischenraeume Kurfuerstendammm)’ 전시회 열려

사회 & 문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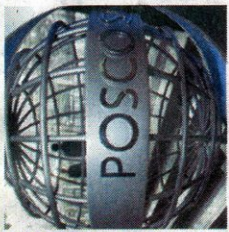
<19면> 에쿠아도르 여행기(2)
<30면> 베를린 국제 영화제
<34면> 2009년 변경된 생활관련
독일 법률(2)

PVST, P. AG, Entgelt bezalt K14131

발행인 : 윤영자 CEO : 강홍순 편집장 : 조인학

1995년 11월 17일 창간

주간신문 교포신문



<Deutsche Ausgabe> Seit 24
Posco schert mit
Kapazitätsausbau aus



재독 대한 축구협회
황경남 신임회장 추대
<9면> 사 회

교포신문

KYOPOSHINMUN

베를린)2005년 이래로 틈새 Zwischenraeume를 주제로 베를린 거리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특정한 장소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 각도에서 보여지는 장면을 그려온 오정근 작가는 건축물과 자연의 많은 조화 중 하나를 선별하여 종이 위에, 사진으로 그리고 캔버스 위로 옮겨 또 다른 생명들을 창출한다.

2008년 12월 8일부터 2009년 1월 28일까지 베를린 galerie son에서 진행된 이번 ‘쿠퓨스텐담의 틈새 Zwischenraeume Kurfuersten-

dammm’ 전시회는 22x30cm의 작은 크기부터 200x200cm 크기의 총 45 유화작품과 하나의 사진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. 보다 구상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작은 작품들과 추상적이고 아주 간략한 구성과 색조로 제작된 큰 작품들의 대조는 그의 예술성의 한 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다.

거의 모든 작품들이 여덟 내지 열 겹의 색 층으로 작업이 되어지는데 완성된 작품이 검색을 띠다고 해서 그 아래에 있는 많은 층들이 다 검정색인 것은 아니다. 그 아래에는 회색층, 분홍색, 심지어는 빨강색 층들이 자리를 하고 있다. 단순한 구성의 작품이라고 해서 그전 작업 층들이 모두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. 그 아래에는 사실적이거나 반구상적인 그림들이 숨어 있다.

다시 말하자면, 우리가 보는 완성된 작품 상의 한 가지의 색은 한 색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며, 우리가 보는 추상적이면서 지극히 단순한 구성은 사실 추상이 아니며 또한 단순한 구성도 아니다. 한 층의 그림도 끝을 내기 어렵고 한 작품을 빨리 완성해서 초고속의 경제 순환을 위해 모든 노력을

하는 요즈음에 오정근작가는 왜 이렇게 많은 층으로, 여러 성격의 그림들을 한 그림에 담는 것인가?

이 질문은 앞으로 전개되는 작가의 작품성을 예측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과 동시에 과거의 모습이 어땠나를 암시하는 근본적인 정보가 된다.

서울대 장욱진교수의 마지막 제자인 오정근작가는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한 후에 한국, 중국과 일본에서 여러 차례의 수상을 통해 주목을 받으며 등단을 한 후 2005년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. ‘Light Festival Berlin, 2006’, ‘United Buddy Bears, Wiesbaden 2006’, ‘Dialog zwischen Gerhard RICHTER und Junggeun OH, 2007’, ‘IN BETWEEN, Asien-Pazifik-Wochen Berlin 2007’, ‘schlitzaugen, Asien-Pazifik-Wochen Berlin 2007’, ‘Kunstprojekt mit KPM, 2008’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.

순수한 빨강 색을 유난히 좋아하는 젊은 한국독일작가 오정근은 2009년 독일베를린장벽 20주년 기념을 토대로 베를린 공공장소에서 100작품을 소개하게 된다. 오는 가을에는 재영독일대사관 초청으로 런던에서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.

(편집실)

[galerie son 연락처]
wallstr. 16, 10179 Berlin
0178-5055 552,
www.galerie-son.com
info@galerie-son.com

